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송년주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10. 전능왕 오셔서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일 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어진 생의 무게는 만만치 않았고 걸어 온 길은 험했지만, 돌보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며 힘이 되시는 주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주신 꿈을 따라 새롭게 길을 떠나는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들에게 꿈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들의 걸음걸음을 지켜 주십시오. 광야와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도 생명의 기운 넘쳐 나는 푸른 언덕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속 10:6 인도자
 - ▲ 교 독 문 63. 시편 145 다 함께
 -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광권희 장로
 - 2부응답송 찬양대
 - 2부찬양 301.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함께
 - ▲ 성경봉독 요 19:38-42
 - I. 인도자
 - II. 박명제 집사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봉독자
다 함께
- 찬 양
 - I. 기도 마중물 찬양대
 - II. 거룩하신 주 청파 찬양대

말씀	주여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신진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327. 주님 주실 화평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뜻과 정신을 이어가십시오. 주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주님, 허물 많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귀히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쉽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밤 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 믿음으로 읽는 글 ■

한 해를 보내면서

형,

그 누구도 참답게 사는 길을 처음부터 단번에 알지는 못한대요. 한평생 그 길을 찾아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참답게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각자가 평생을 바쳐 스스로의 자화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가 떠난다며 하는 말이 “공든 탑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탑이 무너진다고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죠. 중요한 건 그 탑을 얼마나 공들이고 정성을 쏟아 쌓는지에 있습니다. 그 탑을 쌓으면서 그가 얼마나 성실한 인간으로 자랐는지에 있다고 여겨요. 돌아서자마자 탑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리 놀랄 건 없어요. 탑을 쌓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싹트고 자랐으며 그의 됴됨이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소중하겠지요.

도라지를 심은 건 한 번 갈아 놓으면 몇 해 동안 가꾸기가 수월해서지요. 도라지가 좋은 반찬거리고 꽃이 깨끗하고 조금은 슬픈 표정을 띠어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점도 일품이지만요.

그러나 그 도라지도 사람들 만나 본다고 지난 봄에 이곳저곳 제법 쓰다닌 적이 있는데, 그러는 동안 도라지밭에는 풀이 꽤 자라 버렸어요. 돌보지 않은 결과가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이 나타난 겁니다.

안타깝게 여긴 이웃 친구들이 제초제를 치라고 해요. 제초제를 쓰면 결과는 뻔합니다. 당장 도라지가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역센 풀은 되레 뿌리가 살아남아 다시 돌아날 것이 뻔했지요.

제초제란 어디까지나 응급 처방이지 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냐, 도라지를 말려 죽이는 처참한 미봉책을 쓰지 말고 돌보지 못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자고 다짐하며 달라붙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 골, 다음 날은 반 골씩 풀을 뽑았습니다. 풀을 뽑아낸 곳의 도라지는 숨을 제대로 쉬고 펄펄 뛰는 듯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에 신이 났습니다. 도라지와 함께 나도 신나고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일은 어렵게 하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색해서는 안 되지만 절약은 해야죠. 물건을 아낀다는 건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자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며 고마움의 표시라고 여겨요. 낭비는 대상을 함부로 다루는 성실하지 못한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물건을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이어져서 국토와 이웃, 자기 자신까지도 소중하게 가꿀 수 있다고 봅니다. 낭비하고 함부로 버리는 버릇이 마침내 이웃도 고향도, 심하면 자신의 인간성까지 버리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사람이란 별 것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물건을 어떻게 만나고 다루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됨이 이루어지겠지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 형제고, 한 국토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고 사는 것이 같은 동포요 민족이라서 우리는 어울려 살고 그 물을 샘솟게 해 주는 대지와 자연을 어머니처럼 섬기며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먹는 그 물을 헤프게 쓰고 업신여길 뿐 아니라 물이 솟아나는 대지와 자연까지 오염시키고 파헤치며 상처 내는 짓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풀에 독초가 있고 벌레에 독충이 있듯이 인간 중에도 나쁜 놈이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벼보다 피가 억셉니다. 육종하는 데 벼와 피의 교배종을 만들면 벼가 피와 대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밭에서 나는 풀도 비름이나 바랭이, 달같이 같은 건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그 억센 풀과 곡식의 교배종을 만들면 억센 곡식이 생겨 잡초와 독초와도 대결할 수 있고 가뭄이나 장마에도 끄떡없이 자라날 수 있을 듯합니다.

사람도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착함을 지킬 독한 것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치 덜 익은 과실이 자길 따 먹는 사람에게 무서운 병을 안기듯이, 착함이 자기 방어 수단을 갖지 못하면 못된 놈들의 살만 찢우는 먹이가 될 뿐이지요.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억세고 독한 외피를 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물 이야기 하다가 억세고 착한 사람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사람 문제로 돌아간 모양입니다.

형, 잘 있으쇼.

1991. 12. 마지막 날

선달그믐날

- 이재무

오늘은 선달 그믐날
아침나절 나무나 한 짐 지고
일일랑 쉬자
부뚜막 가득 관솔 향기 지피며
콩가루, 참기름 내음에 취하다가
모처럼 읍내 장터에 나가
검불머리 이발을 하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밥맛을 위해
나물을 사고
장흥정을 마치면 뒤편에 나가
빛깔 좋은 대추 씨 좋은 알밤을
추리자 세무소원 몰래
담귀 논 쌀술 사랑채에 꺼내 놓고
할머니 피부색 같은 띠 다듬으며
일 년 내 살다가 찌든 땃물쯤
물 데워 닦아 버리자
셋째 썸에는 고향을 향해 몸 달아 있을
공장 다니는 누이 흑시나 올까
신작로 너머 그리운 안부 기다리면서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곽새롬 권혁순 박혜경b김근종 정옥영 김기석 김희우 김기철
 김명하 오형일 김선지 김성아 김성우 박유경 김승현 김수진a김영옥 김은옥
 김정규 이종옥 김정훈 이진영a김종락 박영신 김지윤 정영우 김진우 임미진
 김창숙 김은종 김해선 김희선 남윤경 노신후 노진래 최형경 마재국 손의나
 문홍일 박미희 박상규 신연화 박상욱 임서영 박연주 설규범 성지현 손규현
 오보영 송남필 송인선 신능수 신진식 변혜정 신현일 안정숙 오슬기 이계선
 이소순 이광섭 김수연 이민범 공재량 이성범 권현숙 이수자 이완구 이왕준
 송상경 이자영 이재우 배이화 이진영b한양미 이행진 임고운 오재형 임성택
 흥순위 임승동 백혜숙 장기환 장동훈 정은선 장봉수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전찬익 이은자 정성훈 정연경 주은경 추현영 최소라 고인성 최옥진 최윤희
 최형균 강경화 하현철 최성애 한선희 허신열 홍소형 홍순구 안홍숙
 김선희 남명진 김애정 우순덕 신영신 이범석 류정옥 임선자 정원석 김현영
 정택중 조병무 송양진 최윤화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강석남 강점옥 강혜린 권두리 김나름 김영호 김영희 김일재 박재영 이현정
 신진식 변혜정 윤영미 이광재 이상도 이재삼 전정현 이한림 김명희a장기풍
 장승희 정구봉 채규현 조대덕 채일석 사회봉사부 무명14
 이고임 조홍작 정세진 최다운 최소라 고인성 최윤화

생일감사헌금 은종인

녹색꿈헌금 고묘석 김미란 김주희 백지아 윤미경 윤수진 이행진 장좌환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